

간이정신진단 검사에 의한 남성 불임환자의 정신과적 문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제일병원 비뇨기과¹, 정신과²

서 주 태¹ · 김 경 희²

The Psychiatric Problem of Male infertility Patients by Symptom Check List-90 (SCL-90)

Ju Tae Seo¹ and Kyung-Hee Kim²

Department of Urology¹, Department of Psychiatry² Samsung Cheil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Abstract =

It has been well known that infertile women experience not only emotional disturbance but also stress. But there is no concern about male infertility patients.

So psychiatric symptoms were studied with SCL-90 (Symptom Check List-90) in 30 infertile men who was operated testicular sperm extraction (TESE) in Samsung Cheil Hospital and in age matched 31 fertile men from Jan. 1998 to Aug. 1998.

In 5 symptom dimensions (Obsessive-Compulsive, Interpersonal Sensitivity, Depression, Phobic anxiety, Psychoticism) scores. The Infertile group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The result revealed that infertile men also experienced substantially more psychiatric symptoms than fertile men. Considering this results, psychiatric evaluation and tender care by infertility specialist are necessary for infertile men during and after evaluation and treatment.

Key Words: SCL-90, Infertile men, Psychiatric problem

서 론

한 인간이 아기를 가지고 출산한다는 것은 부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로써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부부 자신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 (Domar & Seibel, 1997).

불임이란 결혼 후 1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Hornstein & Schust, 1996) 가임 연령군에서 15% 정도로 미국에만 약 천만명으로 추산된다 (Domar & Seibel, 1997; Hornstein & Schust, 1996).

이러한 불임은 당사자에게 심한 상실감을 갖게 하며 불임으로 인한 상실감은 가계존속의 상실, 생식능력의 상실, 임신능력의 상실 등을 초래한

다 (Menning, 1980; Koropanick *et al.*, 1993). 그래서 불임은 결혼 생활 그 자체의 의미를 위협하는 것이고 불임의 원인이 남성쪽이던 여성쪽이던 부부의 문제, 나아가서는 가족 전체의 문제로 발전하다 (Kraft *et al.*, 1980).

불임 여성은 가임여성보다 정서적인 장애가 심하고 (Eisner, 1963) 불임 여성에서 상당한 정도의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한다 (유보훈 등, 1990).

불임 부부들은 불임이 그들의 생활에서 가장 당혹스런 경험으로 느끼고 있으며 정서적인 긴장감과 함께 성격의 문제를 동반한다고 한다 (Freeman *et al.*, 1985). 이러한 불임 부부, 불임 여성에 대한 정신적 문제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남성요인에 의한 불임시 남성이 어떤 감정적 영향을 받는지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여성에 비해 적었

다 (Collins et al., 1992).

부부 중심의 가족제도를 취하고 있는 서구에 비해 가장장적인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남성요인에 의한 불임시 어떤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는 지 아직 정확한 조사가 없는 실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임 남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임 남성의 정신과적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불임군은 이전에 제반검사를 통해 폐쇄성 무정자증으로 진단 후 수술적 교정을 실패하였거나 되지 않는 경우로 1998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삼성제일병원 비뇨기과에서 고환조직정자채취술 (TESE; Testicular Sperm Extraction)을 하여 정자를 얻고 이 정자를 이용해서 체외수정을 행한 남성으로 설문조사에 협조한 3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조군은 가임군은 자녀를 1명 이상 가지고 있는 신체적 문제가 특별히 없는 남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정신과적 증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간이정신진단검사 (Symptom Check List-90, 이하 SCL-90)를 이용하였는데, 전체 문항은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각 문항은 "전혀 없다" (0점), "약간 있다" (1점), "중간이다" (2점), "꽤 심하다" (3점), "아주 심하다" (4점)로 5점 평점을 하게 되어있다. 이들 문항들은 9개 증상척도 (신체화, 강박증, 예민성,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로 분류된다.

자료는 전산통계프로그램 (SPSS/PC +)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SCL-90의 각척도와 인구학적 변인간의 계수는 Pearson적율상관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결 과

1. 인구학적 변인

그 각각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불임군과 대조군의 특별한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으나 ($p>0.05$) 다만 교육정도 ($p=0.047$)만이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환자군 (N=30)	대조군 (N=31)
나이 (mean±SP)	39.2±5.6	37.7±11.2
교육정도*		
국졸	2	0
중졸	6	2
고졸	16	10
대졸	4	14
대학원졸	2	5
성장지		
농촌	12	8
중소도시	10	7
대도시	8	16
주거지		
농촌	2	0
중소도시	6	4
대도시	12	17
종교		
무교	14	15
기독교	10	7
불교	4	3
천주교	2	6
가족크기		
대가족	0	0
중간	6	2
핵가족	22	21
경제수준 (월수입, 만원)		
50~100	0	1
100~200	16	14
200~300	10	12
300~500	2	4
500이상	2	0
	p>0.05	*p=0.047

2. SCL-90, 9개 척도별 점수

SCL-90의 불임군에서 각 척도별 점수는 우울증, 강박증, 불안, 신체화, 정신증, 편집증, 예민성, 적대감, 공포불안의 순으로 나타내었다 (Table 2).

3. SCL-90, 9개 척도별 총 점수 및 문항별 총 점에 따른 불임군과 대조군의 비교

각 문항별로 중점을 각각 비교해 본 결과 우울증, 예민성, 공포불안은 $p<0.01$ 수준으로 강박증,

신경증은 $p < 0.05$ 수준으로, 대조군인 가입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게 높았으나 신체화, 불안, 적대감, 편집증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3).

고 찰

결혼한 부부의 15%가 불임을 경험하게 되는데 (Domar & Scibel, 1995), 과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Table 2. Mean of Symptom dimensions of SCL-90 in Patients' group (N=30)

Dimensions	Mean
Somatization (신체화)	0.708
Obsessive-Compulsive (강박증)	0.833
Interpersonal Sensitivity (예민성)	0.644
Depression (우울증)	0.967
Anxiety (불안)	0.752
Hostility (적대감)	0.643
Phobic Anxiety (공포 불안)	0.490
Paranoid Ideation (편집증)	0.685
Psychoticism (정신증)	0.704

그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 미루었으나 최근 20년간의 자료에 의하면 불임부부의 1/3은 남성쪽 단독으로 20%는 부부 양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남성측 원인에 의한 불임이 전체 불임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MacLead, 1971; Dubin & Amelar, 1971).

이러한 불임은 불임 부부에게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 및 조사는 주로 여성에 대한 것이 대부분으로 실제 1948년부터 1985년 사이에 발간된 121편의 논문을 보면 단지 18%만 남성에 관한 연구이고 이것도 대부분이 1960년 대 이후에 발표된 것이다 (Bents, 1995). 1970년 이전까지는 불임에 대한 남성적 반응이란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정신과적 측면보다 생리학적 측면이 강조되곤 했다 (Pantescio, 1986).

그러나 불임의 원인중 반 이상이 남성적요인으로 밝혀진 지금, 불임 여성에 대한 정신적 문제에 대한 조사는 있으나 (유보춘 등, 1990; 정현상 등, 1991). 불임 남성의 정신과적 문제에 관한 조사는 없는 실정이다.

불임 남성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치감의 상실과 검사를 받으려는 의지의 상실이다 (Spencer, 1987). 불임검사는 남성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 이러한 불임검사를 함에 있어 남성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검사하고

Table 3. Comparison of symptom dimation of SCL-90 between patients' and control group

Dimensions	Subtotal scores \pm SD		p-value
	Patients (N=30)	Control (N=31)	
Somatization	8.50 \pm 7.84	5.71 \pm 6.25	0.131
Obsessive-Compulsive	7.50 \pm 5.98	6.77 \pm 4.26	0.049*
Interpersonal Sensitivity	8.80 \pm 5.72	4.55 \pm 4.48	0.002**
Depression	12.57 \pm 4.54	6.00 \pm 5.83	0.002**
Anxiety	7.52 \pm 7.69	4.26 \pm 4.65	0.062
Hostility	3.86 \pm 3.41	3.00 \pm 3.94	0.378
Phobic Anxiety	3.43 \pm 4.20	0.94 \pm 2.11	0.006**
Paranoid Ideation	4.11 \pm 2.69	2.65 \pm 0.44	0.051
Psychoticism	7.04 \pm 7.19	3.13 \pm 4.70	0.019*
Others	5.93 \pm 4.13	3.50 \pm 3.67	0.021
Total	60.35 \pm 46.28	38.15 \pm 35.23	0.059

* $p < 0.05$

** $p < 0.01$

치료에 노력하나 환자들의 반응 또한 제 각각으로 심한 경우 임신할 수 있는 부인을 거부하기까지 한다 (Mahlstedt, 1985). 그러므로 이러한 남성 불임 환자는 불임 여성환자와 마찬가지로 세심한 주의와 따뜻한 감정으로 대해야 한다.

불임 남성에게 왜 아기를 가지기 원하느냐고 질문하면 가장 빈도 높은 답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가 있게 만들기 위해"이다 (Lalos *et al.*, 1985). 불임에 대한 남성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사해 보면 남성요인이 있고 없음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불임 치료를 하고 있는 36쌍의 부부를 조사한 연구에서 불임이 남성적요인에 의한 불임일 때 남성이 갖는 감성적 스트레스는 부인이 받는 스트레스와 비슷하나 남성적요인이 없을 경우는 부인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Connolly *et al.*, 1992).

불임의 원인이 남성일 경우 남성 환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불임에 대한 진단 및 치료과정 자체가 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여성 뿐만 아니고 남성에 대한 정신과적인 배려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결 론

남성 불임과 관련된 남성의 정신과적 증상을 조사하기 위해 1998년 1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삼성제일병원 비뇨기과에서 고환조직정자 채취술 시행한 남성 30명과 자녀가 있는 남성 31명에게 SCL-90을 실시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5개 증상척도(우울증, 예민성, 공포 불안, 강박증, 신경증)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조사로 보아 남성도 그 요인이 남성요인에 의한 불임일 경우 자녀가 있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정신과적 상담과 불임 시술전문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인 용 문 헌

Bents H: Psychology of male infertility: A literature survey. *Int J Androl* 1985, 8, 325-326.
 Collins A, Freeman EW, Boxer AS, Jureck R: Preceptions of infertility and treatment stress in females as compared with males entering in vitro

fertilization treatment. *Fertil Steril* 1992, 57, 350-356.
 Connolly KJ, Edelman RJ, Cooke ID, Robson J: The impact of infertility on psychological functioning. *J Psychosom Res* 1992, 36, 459-468.
 Domar AD, Seibel MM: Emotional aspect of Infertility. In: Seibel MM, Infertility: A comprehensive text. 2nd ed., Stanford, CT, Appleton & Lange, 1997, 29-44.
 Dubin L, Amelar RD: Etiologic factors in 1294 consecutive cases of male infertility. *Fertil Steril* 1971, 22, 469-474.
 Eisner BG: Some psychological differences between fertile and infertile women. *J Clin Psychol* 1963, 19, 391-396.
 Freeman EW, Boxer AS, Rickel K, Jureck R, Mastroianni L: Psychological evaluation and Support in a program of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Fertil Steril* 1985, 43, 48-53.
 Hornstein MD, Schust D: Infertility. In: Novak E, Novak's textbook of Gynecology. 12 th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96, 915-962.
 Kraft AD, Palombo J, Dean C, Meyers S, Schmidt AW: The psychological dimensions of infertility. *Am J Orthopsychiatry* 1980, 50, 618-628.
 Koropanick S, Daniluk J, Pattinson HA: Infertility: A non-event transition. *Fertil Steril* 1993, 59, 163-171.
 Lalos A, Jacobsson L, Lalos O, von Schoultz B: The wish to have a child: A pilot study of infertile couples. *Acta Psychiatr Scan* 1985, 72, 476-481.
 MacLeod J: Human male infertility. *Obstet Gynecol Surv* 1971, 12, 325-351.
 Mahlstedt PP: The psychological component of infertility. *Fertil Steril* 1985, 43, 335-346.
 Menning BE: The emotional needs of infertile couples. *Fertil Steril* 1980, 34, 313-319.
 Pantesco V: Nonorganic infertility: Some research and treatment problems. *Psychol Rep* 1986, 58, 731-737.
 Seibel MM, McCarthy JA: Infertility, pregnancy and the emotions. In: Goleman D, Gurin J, eds. Mind body Medicine. Yonkers, NY, 1993, 207.
 Spencer L: Male infertility: Psychological correlates.

Postgrad Med 1987, 1; 81, 223-228.

유보춘, 박영남, 서영욱: 불임여성의 심리적 증상
간이검사. *신경정신의학지* 1990, 29, 224-237.

정현상, 장환일, 서병희: 간이정신진단검사에 의
한 불임여성의 정신과적 문제. *신경 정신의
학지* 1991, 30, 1032-1041.